

이상일 대표

한국해비타트 창립 20주년 기념식서 공로패 받아




공로패를 받은 후 기념촬영(사진 왼쪽 이상일 대표, 오른쪽 정근모 한국해비타트 이사장)

이상일 (주)정도설비 대표(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가 지난 16일 장충교회 글로리아홀에서 개최된 한국해비타트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건축기술발전에 공헌한 공로고 공로패를 받았다.

이상일 대표는 지난 1994년 설립된 한국해비타트의 건축위원으로 창립 당시부터 참여하여 건축설비 설계 및 내역서 작성, 건축설비설계 매뉴얼의 업데이트는 물론 사랑의 집짓기 봉사활동에도 직접 참여해 왔다. 이상일 대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제대로 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 벌써 20년이 되었다”면서 “무주택 서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앞으

로도 꾸준히 활동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해비타트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락한 집이 있는 세상’의 비전으로 전 세계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 국제 NGO이다. 한국해비타트는 우리나라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소박하지만 안락한 집을 지어줌으로써 가정을 회복하고 경제적 자립을 통해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풀뿌리 운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정도설비는 해비타트 활동 외에도 한국 펠릭재단을 통해 캄보디아 아동들에게 교재 지원, K-move school 사업을 통해 6명의 연수생에게 장학금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제51회 무역의 날 기념식서 대통령 표창 및 1천만불 수출탑 수상



대통령 표창 및 1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한 후 기념촬영
(오른쪽 홍평우 회장, 왼쪽 홍경모 전무이사)

(주)우진아이엔에스(대표 홍평우·최한욱)가 지난 해 12월 5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51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활발한 해외건설시장 진출 및 129,209백만불 매출(2013년 결산 기준)을 달성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과 함께 1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우진아이엔에스는 중국의 반도체 생산업체 설립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중국 서안에 '서안우진기전설비안장유한공사'를 설립하여 중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 후 2013년 중국 서안 삼성물산 M-Project, 중국 소주 Hynix 등에 Coated Duct, Coated hook-up & fittings 수출을 통해 전년대비 7배 이상의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2013년에는 중국 상해, 소주, 서안 등에 약 US 1천만불의 코팅 덕트, 코팅훅업 및 부속류와 생산장비를 수출했으며 2014년 10월 현재 USD 4백만불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4년에는 미국 Coguard사와 덕트 코팅 기술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미주 시장 진출기회를 모색하였고, 생산시설에 과감히 투자 중인 개발도상국과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선진국에 우진아이엔에스의 기술력을 적극 홍보하는 등 능동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또한 동경 Maintenance/Techno Show, SEMIXON CHINA 2014 등 해외 유수의 주요 설비관련 박람회 참관을 통해 우진아이엔에스를 적극 알리고 있다.

홍평우 회장은 “해외진출을 위해 노력한 결과 큰 상을 받아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하여 국내 건설경기 침체 극복의 첨병이 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

김주환 (주)백산이엔씨 대표, 'CEO 커뮤니티' 인터뷰

CEO COMMUNITY

CEO Community는 KB국민은행이 기업고객에 드리는 지식선물입니다.



완벽한 실비로 건축물에 생명을 불어넣다

2014년 12월호 'CEO 커뮤니티'에 게재되었습니다. (주)백산이엔씨 김주환 대표의 인터뷰 내용은 2014년 12월호 'CEO 커뮤니티' 10페이지에 실렸습니다. (주)백산이엔씨는 1994년 설립된 종합건설기업으로, 2014년 12월호 'CEO 커뮤니티'에 게재되었습니다. (주)백산이엔씨는 1994년 설립된 종합건설기업으로, 2014년 12월호 'CEO 커뮤니티'에 게재되었습니다.

김주환 대표는 인터뷰에서 백산이엔씨가 1994년 설립된 이후 20년째 대구지역 1위 업체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을 묻는 질문에 "지역 내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동반성장 및 상생의 증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건전한 기업경영의 모델이며 매 연말 현장 직원들에게 등산용 양말 1,000타스를 제공해 차가운 겨울철 산업현장을 훈훈한 분위기로 만들어 주고 회사 창립 이래 단 한번도 직원 급여를 어긴 적이 없을 정도로 직원 복지 및 후생에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환 (주)백산이엔씨 대표(대한설비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회장)가 국민은행이 발행하는 월간 'CEO 커뮤니티' 2014년 12월호 CEO Focus면에 게재됐다.

월간 'CEO 커뮤니티'는 중소기업 CEO 및 임원들에게 제공되는 경영 정보지로서 국민은행 대구시 내당동 지점의 우량 고객으로 엄선된 백산이엔씨의 기계설비분야 대구지역 1위 업체 성장 스토리와 함께 김주환 대표의 열정과 도전을 소개했다.

김주환 회장은 'CEO 커뮤니티'에서 "완벽한 전문가가 보이지 않는 것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쓴다"며 "백산이엔씨가 그동안 마감 속에 가려져 있는 기계설비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완벽한 시공을 추구한 것이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쌓게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의 성공이 있기까지 과정은 힘들었지만 대구 지역 업체로서 대한민국 10대 메이저 건설사에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동반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 큰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며 건설인으로서 한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백산이엔씨가 거래하는 대구시 내당동지점 최기홍 수석지점장은 (주)백산이엔씨를 "1994년 냉·난방 위생 공조덕트 설비공사를 목적으로 설립돼 종업원 500여명 규모의 대구지역 1위 업체로 성장한 외감 설비전문업체"라고 밝히며 "IMF의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영업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설비분야의 실무자로 오랫동안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업계 현황에 상당히 밝은 편"이라고 김주환 대표를 소개하며 "지역 내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동반성장 및 상생의 증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건전한 기업경영의 모델이며 매 연말 현장 직원들에게 등산용 양말 1,000타스를 제공해 차가운 겨울철 산업현장을 훈훈한 분위기로 만들어 주고 회사 창립 이래 단 한번도 직원 급여를 어긴 적이 없을 정도로 직원 복지 및 후생에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